

KOKKOS 4

APR 2024 VOL. 264



☀ 한국성서대학교 KOREAN BIBLE UNIVERSITY 코코스는 '한 알의 밀'을 의미 • 발행인 강우정 • 편집주간 이강동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 TEL 02-950-5401 • www.bible.ac.kr

지난 5일, 교무위원회를 마치고 교무위원들이 벚꽃길 앞에서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왼쪽부터 장인순 성과관리실장, 원영희 사회복지학과장, 조혜경 대학원장, 최육렬 학업지속지원본부장, 강규성 부총장, 최정권 총장, 임지영 평가감사실장, 최은희 학사부총장, 이성아 NSLB지원단장, 박태수 대학원교학처장, 권경만 전략기획실장)

최정권 시대가 열리고 있다

예배가 살아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타오른다

“대학평가의 모든 지표에서 뒤져야 할 이유가 없다”

교훈비의 위치가 달라졌다.

모리아관을 배경으로 캠퍼스의 가장 중심점으로 옮겨졌다. 최정권 신임총장은 아침 교직원 기도회를 마치고 예외없이 이 교훈비 앞에 선다(사진). 어느 구절을 마음에 새기며 읽을까? 아마도 마지막 구절 “영원히 거두려거든 복음을 심으라”가 아닐까 싶다.

최정권 총장은 대학의 정체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취임 초부터 여러 대학을 순방하며 배우려고 노력하는데 결론은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총장 취임 후 예배가 역동적으로 살아나고 있고, 곳곳에서 조용하지만 영적인 부흥의 물결 소리가 퍼지고 있다. 최 총장은 지난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고난주간에 일립생활관 학우들의 특별새벽기도회를 인도하였다. 명설교자로 소문난 그가 외부 초청도 있었겠지만 생활관 학우들에게 돌아와 고난의 새벽을 같이 하며 십자가의 예수를 역설하였다. 학우들 사이에는 자발적으로 제자훈련반도 생겨났다. 이들은 교목실과 협의하여 7주간의 제자훈련반을 시작하였다.

최정권 총장은 대학평가의 모든 지표에서 우리는 뒤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믿고 있다.

한 보직자는 “신임총장은 대학에 대한 외부자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그는 담당자들에게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하였던 약점을 하나 하나 들여다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 보직자는 “최 총장이 우리 대학의 양적/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총장실에는 전국 4년제 대학의 각종 지표 현황표가 걸려 있다. 신입생 충원율부터 교내·외 연구비, 전임교원 1인당 논문실적(SCI급) 등 주요지표가 대학순위별로 나열된 도표이다. 한국성서대학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그는 이 도표를 살피며 “다가오는 파도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모든 지표에서 결코 우리는 어느 대학에도 뒤져서는 안 된다는 결기를 보였다.

최 신임 총장은 시용합학부 신설에도 집념을 보이고 있다. 단순 학과 증설이 아닌 위기라고 말하는 SI 영역에 복음전도자를 양육하여 파견하는 일로 보고 있다. 시용합학부가 과연 우리 대학에 허가 될까? 그는 “복음의 일꾼을 키워 세상에 보낸다는 우리 목적과 방법이 분명하기에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비니성교

남겨지는 이름 (열왕기상 1 장)

반우형 목사(교목실)



열왕기상 1 장에는 이름을 남기려는 자와, 남겨지는 사람이 등장한다. 스스로 이름을 높여 왕이 되고자 하던 아도니아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약속을 기다리는 솔로몬이다. 두 사람의 결과는 극명하게 갈린다. 다윗 왕과 백성들로부터 인정과 환호를 받은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그 소리에 두려움에 떨던 아도니아는 제단의 뿔을 잡고 버티며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었던 아도니아는 결국 솔로몬의 준 기회를 저버리고 다시 왕의 자리를 넘보다가 처형을 당하는 것으로 그의 삶이 끝난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스스로 남겨지고

싶은 자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린 자는 남겨지는 자로 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겼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방법으로 나만의 행적을 남기고, 이름을 남길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적과 이름이 모두 선하고 명예로운 것은 아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이름으로 남겨지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스스로 이름을 남기며 최악의 길에 서는 자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 이름이 기록되어 선한 길에 이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한다.

2023 최우수 부서 교수학습센터

최우수 팀장 신지수 입학관리팀장
최우수 팀원 신금주 진로심리상담센터



윤혜진 센터장
(교수학습센터)



신지수 최우수 팀장
(입학관리팀장)



신금주 최우수 팀원
(진로심리상담센터)

교수학습센터(센터장 윤혜진)가 2023년도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었다. 이 센터는 지난 2023 학년도에 학생-교수간 공동프로젝트 운영, Design Thinking, 자기주도, 협력 학습프로그램 등 여러 사업을 통해 교수 역량 강화,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학생-교수 공동 프로젝트에서는 15개 팀이 참여하였고, 연구결과물 10건이 KCI 등록 학술지에 실렸으며 3건은 교재로 출간되었다. 우수부서 공동 2위는 입시관리팀(팀장 신지수)과 한국어 교육원(원장 최육열), 성과관리실(실장 김희수)이 차지 하였다.

입시팀은 신입생충원율 100%를 계속 이어오고 있음은 물론 2023년 ‘입시코디제’를 도입하여 각 학과가 입시 일선에서 활동하도록 하였다.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대학 입시는 입시팀만의 제한된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돌파구를 찾아가는 입시팀의 선제적인 노력이 높이 평가되었다. 한국어교육원은 2023년 연수생의 수료율, 불법체류율, 의료보험 가입율 등 학생지원 및 관리의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우수 평가를 받았다. 한국어교육원은 또 당초 수입예산이 6억6천이었는데 실제로는 8억7백이 수입되어 123%를 달성하였다. 성과관리실은 비교적 신규 부서임에도 단기간 내에 부서의 목표와 로드맵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설정하는 능력을 보여 주었다. 또 이를 공동체와 공유함으로써 우리 대학 성과를 성공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최우수 팀장 영예는 신지수 입학관리팀장이 차지하였다. 이어 김병수 학업지속지원팀장이 2위, 최지은 도서관 팀장이 3위에 올랐다. 최우수 직원은 신금주(진로심리상담센터), 2위 임환석(교학팀), 3위 박명우(사무관리팀) 직원이다.

우수부서 상위 10위와, 우수팀장 상위 7위, 우수팀원 상위 5위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우수부서 상위 10위

- ▲ 교수학습센터 ▲ 입학관리팀 ▲ 한국어교육원 ▲ 성과관리실
- ▲ 사무관리팀 ▲ 교학팀 ▲ 대외협력팀 ▲ 학업지속지원팀
- ▲ 교목실 ▲ 전산지원팀

△ 우수팀장 상위 7위

- ▲ 양희정(사무관리팀, 2022최우수) * 수상 열외
- ▲ 신지수(입학관리팀) ▲ 김병수(학업지속지원팀) ▲ 최지은(도서관)
- ▲ 장성희(성과관리실) ▲ 유미나(교학팀) ▲ 문지예(취창업지원센터)
- ▲ 김덕원(전산지원팀)

△ 우수팀원 상위 5위

- ▲ 배민정(입학관리팀, 2022최우수) ▲ 전영호(대외협력팀, 2020최우수)
- * 이상 수상 열외
- ▲ 신금주(진로심리상담센터) ▲ 임환석(교학팀) ▲ 박명우(사무관리팀)
- ▲ 김창현 (교목실) ▲ 신재운(사무관리팀)

2024년 「봉사의 해」 봉사로 주께 영광

성서공동체 1인당 10시간
전체 1만시간 봉사에 도전

올해 우리 대학은 「봉사의 해」이다. 교목실은 이웃 사랑의 섬김을 실천해 갈 「우리 함께 THE* 봉사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성서공동체가 연합하여 봉사 1만 시간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봉사의 해」 핵심은 4개 세부 사업(봉사 교육, 개인 및 그룹 봉사, 프로그램 공모전, 해외 봉사)을 통해 성서공동체 1,000명 기준, 개인당 10시간씩 실천하고 목표인 10,000시간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봉사 프로젝트이다.

교목실은 이번 프로젝트에 맞춰 개인(VMS, 1365 봉사 불인정) 봉사가 가능한 교내 5개 분야로 △ 전도훈련반 중심 봉사 △ 각 동아리 통한 봉사 △ 밀알캠프 프 자원봉사 △ 밀알훈련 자원봉사 △ 교내 청소 (배수로 이물질 낙엽 제거 등)를 선정했다. 교외 프로그램은 (VMS, 1365 봉사 인정) 노원구청, 한국자원봉사센터, 나눔 봉사넷, 서울시 봉사 포털 등 9개 기관과 단체가 해당 된다.

이밖에 그룹별 봉사는 방학 기간에 진행되며 총 5개 팀에게 팀당 60만 원의 실비를 제공하는데 교외 농어촌 봉사와 지역 봉사로 구분하였다. 농어촌은 하계 방학(3개팀) 기간을 이용해 섬 청소, 수확 돕기, 도배, 수로 작업 외 다양한 어르신 돕기 등을 참여할 수 있다.

지역 봉사는 동계 방학(2개팀) 기간에 진행(KBU 임팩트 지역 봉사와 연계가 가능)되며 지역교회 성경캠프, 무료 급식센터, 노숙자 봉사하기 등이 가능하다. 만약 해외 봉사를 희망할 경우, KBU임팩트 봉사단, 한국장학재단 프로그램, 대사협봉사단이 있다. 참여 시기와 방법 등은 지역사회임팩트센터(센터장 한진호)와 조율하면 가능하다.

학우들은 제시한 봉사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개인 혹은 그룹별, 봉사 지역과 기관 등을 선택한 후 4월 1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교목실은 학우의 봉사 인증 확인을 위해 구글 폼(출수 달 발송)에 개인이 자신의 봉사 실적을 입력할 수 있도록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U 창업동아리 모집

취·창업지원센터
창업관련 자료와 활동자금 제공

취·창업지원센터(센터장 문지예)가 교내 창업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실생활에 필요한 아이디어 및 새로운 가치 창출 발굴로 학생창업에 도전해 갈 'KBU창업 동아리원'을 모집하고 있다. 창업에 필요한 각종 교육자료 제공과 소액의 활동 자금이 제공된다. 지향점이 비슷한 선후배가 소그룹으로 모여 스터디하고 관련 정보의 탐색과 실전 사례를 공유하면서 창업 열기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큰 경험을 줄 것이다.

문지예 센터장은 “우리 학우들이 창업에 관심을 갖는 순간부터 세상을 보는 관점도 매우 진지해진다. 도전하는 기쁨과 성숙한 의식까지 경험케 해 줄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요청했다.

4팀을 선발하게 되며 팀당 4인 이상 참여가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4월 18일 까지이다.

2024 대학혁신지원사업비 1 차분 13 억 배정

2 차는 심사 거쳐 8 월에 지원 예정

교육부가 지난 3월 22일 우리 대학에 대학혁신지원사업 2024년도(3차 년도) 사업비 중 1차로 13억 8백만 원(50%)을 지원한다고 통보해 왔다. 2차분은 대학의 2024년도 사업계획서를 심사 후 결과에 따라 30%~70%까지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지난 2021년 9월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대학에 주어지는데 우리나라 4년제 186개교 중에서 136개 대학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 대학은 ‘죽음의 조’라고 알려진 수도권역 소재 73개 대학과 경쟁하였다. 그 중 51개교가 선정되었는데 그 중에 선정 되는 쾌거를 이루어 낸 것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2024년으로 종료되고 2025년부터는 대학기관인증평가를 통과한 대학에게 일반재정지원을 한다. 우리는 지난해 ‘인증’을 받았으므로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은 갖춘 셈이다.

지난 3년(2022-2024) 우리 대학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재정지원액은 도합 약 67억이다.

2024 FT, ‘봉사의 해’ 주제로 교내서 열려

3 월 11~13 일

봉사하고 섬기며 그리스도를 전하자



최정권 총장이 권면하고 있다.

2024년 FT(Faith Training)가 3월11~13일까지 교내에서 개최되었다. ‘봉사의 해’를 맞아 FT의 주제도 ‘우리 함께 *THE 봉사(Ten Hours per Everyone)로 정하고 베드로전서 4장1절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를 주 성구로 진행됐다. 최정권 총장은 개회예배의 권면사에서 “FT가 학과의 벽을 허물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넘어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FT의 주 강사는 박에스더 장학사(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와 이병모 관장(43회,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 담당하였다. 박에스더 장학사는 자신이 케냐의 원주민 부족이 된 사연과 그 곳에서의 봉사활동을 전해 큰 공감을 일으켰다. 이병모 관장은 역경에 처한 청소년 사례를 전하면서 위기의 청소년들을 심리, 사회적으로 자립하도록 도와 달라고 말하였다.

문화 공연도 있었다. ‘Calling Choir’(SBS 싱가포르 TOP 10)의 합창, 인기 래퍼 ‘PetER’가 주님과 만남에 대한 간증과 랩 찬양 등으로 학우들을 열광케 했다.

학우들은 골라서 듣는 주제별 강연에 반응이 뜨거웠다. 윤현목(64회) 강사의 ‘타인의 고통을 구경하는 시대에 함께함이란?’, 김혜민 PD(YTN 라디오)의 ‘존버(비속어인 존*+버티다의 합성어)하며 괜찮은 어른 되기’, 이유미(교회언니유미채널 운영) 사모의 ‘사랑에도 노력이 필요하나요?’ 특강들이 학우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각 학과의 학회와 동아리마다 개성과 특성 살린 홍보전이 열기를 띠었고 공동체 통합 프로그램도 학우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다음총학과 학회가 행사의 전체 진행을 도왔으며 학우들은 조별 프로그램을 통해 새 친구와 낯을 익히는 등 선후배 관계를 좁혀가는 시간이 됐다.

대학원에서는 11일 저녁, 이재서 세계밀알연합 총재(전 총신대학교 총장)가 원우들에게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고후 5:7,잠언 3:5~6)”로 말씀을 전하였다.

제 40 대 다음총학 출범식 채경훈 회장 “청춘의 아름다움을 찾도록 지원하겠다”

다음총학생회 인준식이 7일 로고스홀에서 개최돼 최정권 총장의 총학 인준장 수여, 총학지원금 증정 및 이·취임사와 격려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채경훈 다음총학 회장은 취임사에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총학 회장의 중책으로 큰 책임감을 느낀다. 다음총학에는 ‘나 다음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 학우 여러분 스스로가 역량을 키워 청춘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자아를 찾도록 다음총학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인사하였다.

최정권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우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여러분도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좋겠다. 우리는 성서공동체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었다” 며 학우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다’를 힘차게 외쳤다. 그리고 채 회장과 뜨겁게 허그를 나누었고 현장을 지켜본 모든 재학생과 교직원들이 큰 박수갈채로 성원을 보내며 40대 다음총학의 첫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했다.



최정권 총장이 건네 준 교기를 채경훈 총학회장이 힘차게 흔들고 있다 (왼쪽부터 최정권 총장, 김진 총무, 채경훈 회장).

눈을 들어 세계를 바라보라 ‘2024 KBU Global Challenge’ 팀 모집

취·창업지원센터(센터장 문지예)가 ‘2024년 KBU Global Challenge’에 도전할 패기있는 학우를 모집 중이다. 자신의 꿈을 세계를 무대로 펼치고 싶은 학우들에게는 기회이다. 전공 분야와 관련된 세계적 기업의 탐방, 글로벌 기업의 취업기회 탐색, 같은 분야 젊은이들과의 교류 등 목적과 주제를 명확히 설정한 기획서를 작성해 4월 1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최종 2개 팀을 선발(1팀당 4~6명)한다. 29일 최종 선발팀을 발표한다.

선발된 팀에게는 항공료를 지원하며 그 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일정은 여름방학에, 체류 기간은 4일~15일 간이며 6월 22일 이후 출발, 8월 18일 안에 돌아와야 한다.

‘2023년 KBU Global Challenge’에서는 컴소학과 ‘A.E.T’팀 4명이 미국 실리콘밸리를 탐방하였고, 사복, 성서학과 학우가 함께 한 ‘복세편살’팀 4명은 일본 오사카와 교토에서 전공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했다.

신입직원

박태용 (시설관리), 강지현 (평가감사실)
임은령 (평생교육원), 김혜란 (카페테리아) 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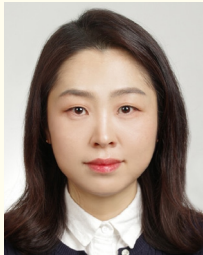
박태용 (시설관리)



강지현 (평가감사실)



임은령 (평생교육원)



김혜란 (카페테리아)

시설관리팀 박태용, 평가감사실 강지현, 평생교육원 임은령, 카페테리아 김혜란 직원이 성서공동체에 새롭게 합류했다.

박태용(43회, 시설관리팀) 직원은 입시학원과 에어컨 설비 업체를 경영하였다. “성서공동체로 돌아와 모교를 돕고 섬길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가감사실 강지현(64회, 평가감사실) 직원은 삼성서울병원 사무행정파트에서 업무해 왔다. “내 학교에서 근무하게 돼 감사하다며 맡은 임무를 꼼꼼하고 완벽하게 수행하겠다.”

평생교육원 임은령(48회, 평생교육원) 직원은 본교와 숙명여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숙명여대 외래 강사 및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보육경력이 있다. “모교에서 사명의 십자가를 들고 주어진 역할을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겠다”고 밝혔다.

김혜란 매니저는 친구대학 산업디자인을 전공하였고 기간제 교사 및 본교 노원평생대학원에서 베이커리 클래스를 강의해 왔다. “성서의 학우에게 음료와 베이커리로 기쁨을 전하게 돼 보람 있다”며 감사를 전했다.

교수 - 학생 공동 연구 학술제

연구결과물 10 편은 KCI 에 등재
교재출간 3 권

참가자들의 학습역량도 크게 향상



신송연 학우가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

2023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진행된 학생 - 교수 간 공동프로젝트 학술제가 27일 오후 로고스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4편의 논문 발표가 있었다. 신송연(성서3) 학우가 ‘지형을 통제하는 기술-세속도시 아멜리아 카피톨리아에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발표했다. 논문은 안창선 교수 지도와 신송연·김영은·김지수(성서3), 김예성·박재찬(성서2) 학우가 참여했으며 「고대서양사연구」 제 68권에 게재되었다.

공동 연구는 5월부터 10개월간 진행됐으며 13명의 교수와 90명의 학우가 참여했다. 결과물은 학술지와 연구지에 논문 12건이 게재되었는데 그 중 10편은 KCI 등재지 게재, 3건은 교재로 출간되는 업적을 이루어 냈다.

참여 학우들의 개인 학습역량도 크게 높아졌다. 교수학습센터의 윤혜진 센터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 참가자의 ‘자기주도학습역량’은 0.31점(5점 척도, 사전/사후 평균차), ‘협동학습역량’은 0.46점(10점 척도, 사전/사후 평균차)이 각각 향상되었다고 말했다.

참여한 한 학우는 “이번 공동연구프로젝트를 통해 면담 방법을 익혔고 코드북을 작성하며 자료 수집과 정리 능력이 높아졌다. 주제에 맞는 선행연구를 찾으며 논문 검색과 작성, 팀원과의 의사소통 방법, 목표를 위해 단합하며 역량이 향상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축사에 나선 최정권 총장은 “오늘 행복했다. 학문적 우수함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걸 교수와 학우가 함께 이뤄냈다는 점이 놀랍고 또 기쁘다”고 말했다.

교수학습센터는 ‘2024년 학생-교수 간 공동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마감은 5월 30일이다.

2023 학생-교수간 공동프로젝트의 연구제목과 지도교수, 참여학생 명단, 성과는 다음과 같다.

▲ 학술연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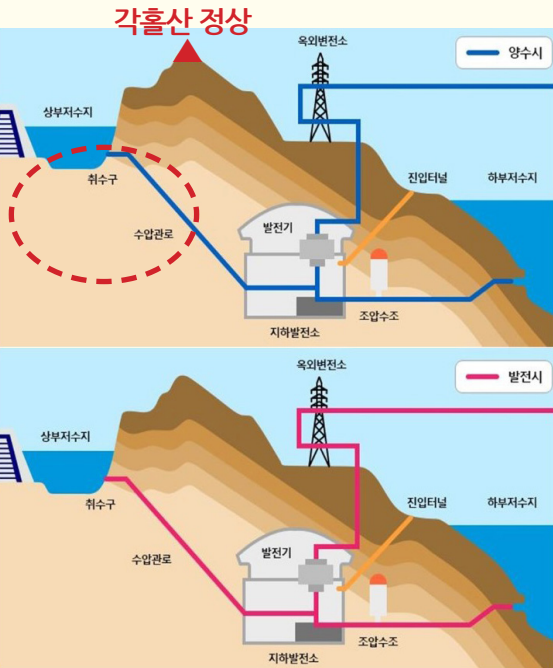
1. ‘지형을 통제하는 기술...’ 안창선 교수(성서학과) 신송연·김영은·김지수(성서3)·김예성·박재찬(성서2) 「고대서양사연구」 제68권
2. ‘...다문화 장애(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한 지원 실태’ 조윤경 교수(영보) 김은서·장다인·지다은(영보4) 이태연·김가빈·김승빈·박민희·이민경(영보3) 「특수교육」 제23권 1호
3. ‘...실시간 스케치 협업 소프트웨어 설계’ 김원빈 교수(컴소) 김윤서·김준범·이선재(컴소4) 「한국정보통신학회」 제27권 11호
4. ‘...영상 배경 변환 시스템의 설계’ 김원빈 교수(컴소) 이삭·김윤서·이현우(컴소4) 「한국정보통신학회」 제 27권 12호
5.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고미숙 교수(간호) 김현철(간호4)·조우준·김지윤·박재현·윤다연·이예원·조유아(간호3) 「간호와 보건 연구」 제29권 1호
6. ‘간호대학생의 자기성찰...미치는 영향’ 김소희 교수(간호) 노혜진·김윤지·김효민·오평은·이한들·이효정·정인서(간호3) 「간호와 혁신」 제28권 1호
7. ‘글로벌 역량 배양을 위한 실천공동체 모델...’ 오은주 교수(기초교양) 명민정·김연재(컴소1)·윤수진·장영현·전소현(간호1) 「교양교육연구」 제17권 5호
8. ‘간호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 ...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상황’ 이소정 교수(간호) 한동규·위진경(간호4)·김수미·서예종·이지민·조은혜·조주영(간호3)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9권 1호
9. ‘간호대학생의 영성... 임종 간호태도에 미치는 영향’ 장인순 교수(간호) 방지원(간호4)·구성연·엄주현·육상하·이하경·정예준·지서원(간호3) 「간호와 보건 연구」 제29권 1호
10. ‘간호대학생의 성장 마인드셋...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 홍소윤 교수(간호) 박윤서·문유진·박은서·이보은·이재영·임수연·한세빈(간호3) 「한국웰니스학회지」 제29권 1호
11. ‘간호대학생의 교수 신뢰...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최은희 교수(간호) 나윤경(간호4)·김나연·권지원·박혜원·송영서·장서영(간호3) 「디지털융합교육」 제3권 1호
12. ‘간호대학생의 일상적 창의성...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김정숙 교수(간호) 김선유(간호4)·윤정의·노은경·박하연·안은서·이가영·이유기(간호3)

▲ 교재출판형

13. 「소 예언자들의 발자취」 김정원 교수(성서학과) 이원형·권샘·김상규·송유진·조민영(성서3) / 에세르
14. 「조식신학 이해하기」 유정선 교수(성서학과) 인성은·정다워(성서4) 조민영·김예성·박소연·차성현(성서3) / 에세르
15. 「토닥토닥 그림책 마을 여행」 김정원 교수(영보) 김가람·심채은·이한솔(영보4)·조효진·김서영·최수아·한예빈·홍시은(영보3) / 어가

포천 학교 땅 17 만평 한수원서 매입의사 밝혀

포천양수발전소 예정지
50 억 원 제시



양수발전소 운영 방식
(위쪽 양수시, 아래 발전시)

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산 399번지 일대의 땅 17만 3천 여평이 한국수력원자력(주) (이하 한수원)에 팔린다. 한수원은 이 땅이 양수발전소 건설에 적지라고 판단 지난 4월 1일 50억 원에 매입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내 왔다. 전체 건설 면적은 68만평이고 그 중 우리 땅은 26%에 해당하는 17만 3천 평이다. 우리 땅에는 양수발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상부저수지가 건설된다.

이 땅은 각홀산 정상 바로 아래 일대인데 산의 정상 부분이고 경사가 가파른 곳이다(그림의 빨간 점선 부분). 밀알훈련 제2일 짜 등산 코스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다. 훈련생들은 이 가파른 지역을 기다시피 올라가 능선에 다다르면 아름답고 긴 능선과 함께 갑자기 광활한 철원평야가 한눈에 들어오는 감격을 맛보게 된다. 학우들은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른 후 능선을 따라 각홀산 정상에 오르면 '해냈다는 성취감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었다.

한수원의 건설 계획은 2025년까지 용지매수, 인허가 등 건설 준비를 마치고 2027년에 착공하여 약 7년간 건설, 2034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발전량은 750메가와트로 전국 2번째로 큰 규모이다. 소요사업비는 약 1조원이며 전국에 7개소의 양수발전소가 있고 현재 포천 등 3개소가 건설 과정에 있다.

강우정 이사장은 "우리 눈에는 한낱 쓸모 없는 땅이었는데 이를 가장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땅이 우리 대학의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한 알의 밀알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양수발전소는 가파른 산의 지세를 이용하여 상부댐 저수지와 하부댐 저수지를 조성하고 심야에 남는 전력을 사용하여 하부댐 저수지의 물을 관로로 상부댐에 끌어 올린 후 전기 수요가 많아지는 낮 시간에 하부댐으로 낙차를 이용해 물을 흘려보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다. 친환경적이고 가장 빨리 필요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카페테리아 새롭게 단장

커피 맛과 분위기 UP, 학우들 호평



새롭게 단장한 카페테리아 내부

밀알관 1층 카페테리아가 전에 없이 학우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학우들은 커피를 비롯한 음료의 품질이 과거보다 훨씬 Up 되었다며 호평 일색이다. 메뉴는 아메리카노 2,500원 등 커피류 7가지, 주스와 에이드, 디저트 등 36개 품목이 판매된다. 높은 호응만큼 일일 주문 평균 약 180~200여 건을 소화하느라 카페는 분주하다. 학교 인근 주민과 테니스장 동호회원까지 외부 고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일부 디저트는 조기 매진될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된다.

그동안 외부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던 카페테리아를 이번 학기부터 학교가 직영하기로 하고 전문가 김혜란 매니저도 채용했다. 김 매니저는 우리 대학 평생교육원(2022~2023년)에서 베이커리 클래스를 담당해 왔다.

사무관리팀(팀장 양희정)은 "직영 전환과 함께 내부 인테리어를 전면 재단장, 깔끔하고 세련된 공간으로 새롭게 꾸몄다. 주방 테이블을 뒷면으로 배치, 입구 출입부터가 한결 여유로워졌다"고 말했다..

김혜란 매니저는 "육체가 힘들어도 학우들의 반응이 좋아 보람을 느낀다. 우리가 만든 커피 한 잔이 학우들의 심신에 작은 위로와 활력이 되고 학교 재정에도 크게 기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정권 총장

총장의
편지

직원
컬럼



이은미 직원(대학원 교학팀)

새내기 봄

총장실에서 업무 시작한 지 한 달입니다. 저에게 요즘 무슨 일을 하냐고 묻는다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일입니다. 평생을 목사로 살았으니까 기도하던 몸이 어디 가겠습니까? 하지만 교회가 학교로 바뀌고 성도가 교직원으로 바뀌고 담임 목사가 총장으로 바뀌니까 이전에 보지 못한 대학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시각 장애인이 눈을 떴는데 아름답고 좋은 세상 속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처럼 새내기 총장의 눈에 다가오는 대학의 위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알게 된 사실은 이 위기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는 절박한 자의 호흡입니다. 다윗의 기도예 나오는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시 38:22) 그가 왜 속히 도와 달라고 말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배우는 일입니다. 저보다 먼저 이 길을 간 대학 총장님들을 방문해서 질문하고 대답에 나타난 그분들의 경험을 통해 감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만남을 통해 배우는 건 대학 정체성의 중요성입니다. 규모를 키우다가 자신을 잃어버린 대학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배우니다. 우리 대학이 얼마나 소중한 귀한 대학인지 그리고 그 대학의 총장이 된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새내기 총장의 눈에는 다가오는 파도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 풍량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신 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AI 융합학부 신설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의 관심은 단순하게 학부의 신설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학부의 학생들을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우리 학교의 목표인 복음 전도자로 양육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만일 일반적인 직업인을 만드는 학과라면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복음의 일꾼을 키워 세상에 보낼 목적과 방법이 분명하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학과를 주실 겁니다.

이제 발표를 앞두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예배 외에 또 다른 기도회는 만들지 않을 겁니다. 다만 교목실에서 금식 릴레이 명단을 만들어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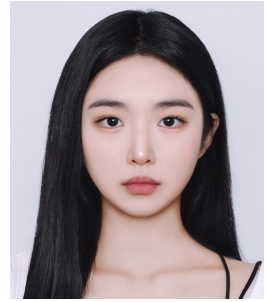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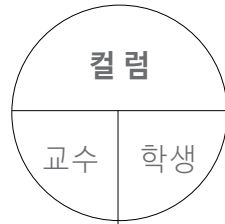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 계절별로 다양하고 아름다운 풍경과 야외에서 즐기는 활동도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계절과 활동이 다 다르겠지만 춥고 메마른 겨울을 지내는 동안 따뜻한 봄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건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봄이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설레고 마음이 꿈틀대는 느낌이 듭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고 새 학기가 시작하는 계절로 소망과 희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방학 동안 고요했던 캠퍼스가 3월이 되면 학생들로 가득 차서 활기가 넘치는 공간으로 변합니다. 신입생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지내게 될 교정을 여기저기 거닐며 구경하고, 교직원과 재학생들은 반가운 재회 인사를 나누며 삼삼오오 짝을 지어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학기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떠오른 말이 있는데 **졸탁동시(喙啄同時)**라는 사자성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 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며 서로 도와야 일이 순조롭게 완성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먼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와 에너지가 분출되어야 합니다. 이제 알에서 나가야 살 수 있기에 병아리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껍질을 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알 속에 갇혀있는 연약한 병아리에게는 혼자서 그 모든 껍질을 부수고 나올 힘이 부족합니다. 그때 바깥에서 어미 닭이 동시에 껍질을 쪼아주기 시작하면 지쳐서 포기해 버리려던 병아리도 다시 힘을 내어 껍질을 쪼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병아리는 알을 깨고 나와 점점 자라게 됩니다. 누군가가 바깥에서 나를 돕는다는 사실을 알면 포기하려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내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봄을 맞이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성아 교수(기초교양교육과)



추소원(영보 2)

제자의 도리

24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 학생들과 채플을 드리는 첫 주. 준비찬양으로 힘차게 올려드리는 중 평소에도 많이 부르는 찬송가 449장 3절 가사가 갑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3절은 이러했습니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그 가사를 부르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의 짐을 지고"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 ~', '남들의 짐을 능히 지고 간다면 ~', '그게 주께서 원하시는 길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짐을 지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슬픔까지 위로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결국 일 만해서는 완성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그 완성이고, 상급을 받는 길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49장을 다시 꼼꼼히 살펴봤더니, 찬송가의 주제 분류가 '제자의 도리'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자의 도리' 주제를 가지고 전체 가사를 쭉 살펴보면,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깨닫게 되는 2024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찬송가 449장을 펴고, 가사를 음미해 보세요. 그게 제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1.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2.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3.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4.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5.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찬양의 후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닌, 즐겁고 복된 길인 것입니다.

더 넓은 세계를 사는 방법

어느 날 문득 나는 내가 어떤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돌이켜보면 언제부터인가 같은 말 만을 사용하여 말하고 있었고, 나의 표현에는 새로운 것이 없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조지오웰의 소설 1984는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독재자 빅브라더는 국민에게 '신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신어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전제에서 비슷한 뜻을 가진 여러 단어를 병합하여 부수적인 의미를 지움으로써 사고의 범위를 축소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어의 범위가 사고의 범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단지 소설 속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 아프리카의 힘바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하늘색이라는 표현이 없는 힘바족은 하늘색과 초록색을 구별하기 힘들어했다. '파랗다'라는 개념 자체를 몰랐기 때문이다.

언어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은 "나의 언어 한계는 나의 세상의 한계를 의미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책을 읽고 언어를 배우며 적극적으로 사고를 확장해야 한다.

현대사회는 '빅브라더'와 같은 독재자가 없이도 자발적으로 신어를 사용한다. 'CHAT GPT', '파파고'와 같은 기술에 의존하고 다른 언어를 습득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나아가 '킹 반네', '헐', '뇌절' 등 신조어와 줄임말을 자주 사용하며 기존의 표현마저 함축시켜 버린다. 신조어를 사용하기 이전의 표현을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어 몇몇 되지 않고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사람도 적다. AI와 같은 과학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인간의 지성이 퇴보하는 이때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언어를 배우며 자신의 세계 확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반세호의

목양칼럼



성서대학교교회 담임

시 선

인생의 많은 문제 가운데 시선의 문제가 큼니다. 시선은 내가 무엇을 주목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시선은 평소 눈길이 가는 방향을 말합니다. 나는 무엇을 보며, 누구를 보고 있는 것이며 어디를 보고 있는가? 보는 것이 우리 마음을 채웁니다. 그것을 관심(觀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시력이 부족 나빠진 것 같아서 며칠 전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운영하는 안경점을 방문했습니다. 시력을 측정한 집사님이 깜짝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교정해야 할 시력 격차가 너무 크게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렌즈를 교정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짐작을 해 보니 시력이 갑자기 나빠진 데는 최근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많아진 요인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이 시간을 지배하고, 감정을 만들어 내고 다시 움직이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보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습니다(창3:6). 잘못된 시선의 결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나의 눈길을 두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도우십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온전히 머물러 있도록 작용합니다. 말씀에 우리 시선이 오래 머물러 있을 때,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 나의 시선은 어디에 많이 머물고 있을까요?

최정권 목사가 한국성서대학교 제 8대 총장으로 취임(3월 1일)함에 따라 '최정권의 목회칼럼'을 성서대학교교회 담임 반세호 목사의 '목양편지'로 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임경미의 토닥토닥시 117

나무는 말을 삼간다

강수성

나무는
말을 못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을 삼가는 것이다.

할 말 있으면 새를 불러
가지 끝에 앉힌다.

새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이웃 나무의 어깨 위로
 옮겨 앉힌다.

동네가 시끄러우면
건너편 산으로
휘잉 새를 날려 보내기도 한다.



<https://blog.naver.com/posankwak/220538920522>

문자에 소리를 입히니 음성이 되고 음성에 뜻을 담으니 수많은 말이 된다. 의미를 꼭꼭 누른 무거운 말, 허공으로 흩어지는 가벼운 말, 순서 교대를 하지 않고 내 말만 독점하려는 말, 명료하지 않은 모호한 말, 말, 말, 말…… 허다한 말들로 지구가 몸살을 앓는다.

그러나 여기, 말을 삼가는 나무가 있다. 나무는 말을 못 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미풍(微風)을 불러 애잔함을 전하기도 하고, 태풍(颱風)을 불러 요란함을 전하기도 한다. 때로는 새를 불러 소식을 듣기도 하고, 시끄러우면 이웃 나무의 어깨 위나 건너편 산으로 날려 보내기도 하며 늘 말을 고른다.

입이 하나인 이유는 '말을 삼가라'는 나무의 신호(sign)이다.

최정권의 온유한
GALLERY
42호

루시안 마이클 프로이드 (Lucian Michael Freud 1922-2011)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 세 2000

https://www.nyculturebeat.com/index.php?mid=Art2&document_srl=3915240



이 그림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은 그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프로이드의 다른 초상화를 봤기 때문입니다.

거울효과처럼 아버지는 보지 못해도 그 자녀의 얼굴을 통해 아버지를 그려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본 프로이드의 그림 안에 나신들은 화가의 병적 집착력이 있고 남녀 생식기를 중심으로 그려진 그림의 크기 앞에 목회자로 산 제 눈을 스스로 감게 만

드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미술관 중앙에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여자가 팔로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실제 가려야 할 부분과 드러내야 할 부분을 착각한 듯한 모습으로... 그런 그가 이 얼굴 하나를 그리는데 무려 1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2002년 왕이 된 지 50년이 되는 엘리자베스의 얼굴을 실제 크기의 모양으로 그려냈는데 그 표정이 근엄하지도 아름답지도 않고 어떤 신비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왕의 위엄이 배어 있어야 할 자리에 동네 할머니에게서 볼 수 있는 깊은 주름과 세월의 풍파가 보입니다. 화가가 굳이 왕관을 쓰라고 권했던 이유를 떠올려 봅니다. 왕관이 없다면 이 여자가 왕인지 아무도 모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왕관의 무게 아래 산 여자의 고통을 그리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둘 다 맞을지 모릅니다. 다만 이 여자의 주름과 왕관의 무게에서 지금 내 삶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녀의 일생을 그린 영국 드라마의 한 대목이 생각납니다. 그녀가 왕이 된 기념일 날 방송했던 내용입니다.

“큰 고난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오기까지 제가 받은 모든 고통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검을 제 뒤에 있는 자에게 주고 저의 용기와 기술은 합당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제 상처와 상흔도 제가 가져갈 겁니다.”

프로이드가 그린 여왕의 얼굴에는 그 상처와 상흔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관 무게보다 더 큰 무게감이 얼굴에 배어 나오는 겁니다.

부모님과 만남이 진행되고 있다.



대학어린이

만남의 날

13~14일까지 「2024년 부모님과 만남의 날」을 진행하였다. 신학기에 부모를 초청해 교육과정 및 운영 과정 전반을 안내하는 자리이다.

영아반과 유아반 교육과정과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안내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인사하며, 상호 관계를 형성해 갔다. 특별히 서로가 개별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이해하고, 함께 걷는 동역자임을 확인하였다. 이곳에 함께 한 모두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바라고 있다는 마음들로 공간이 가득 채워지는 게 피부에 느껴졌다.

부모들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자녀가 지낼 공간을 경험한 것이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기쁨반 이주영 교사]

아름다운 이웃 네트워크에 참여한 업소 사장님과 현판



문경지역사회복지관

10개 업체 '아름다운 이웃 네트워크' 신규 참여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월계의 '아름다운 이웃 네트워크' 사업은 지역 상점, 학원, 동네의원 등이 저소득층 주민에게 이웃돕기 섬김하도록 연결시키는 사업이다. 월계가 시작한 이 사업은 서울 전역(2019년)으로 확산되었고 현재는 노원구 내 16개 복지기관이 '노원구 아름다운 이웃 네트워크'를 형성, 개발 및 관리,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19일, 신규 후원업체 10개소에 공동체 확산을 위해 아름다운 이웃 현판을 지급하였다. 후원업체는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느껴졌다. 어려운 이웃을 돕도록 계속 참여하겠다."라며 나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관내 117개소가 참여 중이며 참여를 희망하면 월계나 지역 주요 16개 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사회조직팀 이동재사회복지사]

유아들이 맛있는 달래장을 만들고 있다.



전원어린이집

달래장 만들기

20일, 춘분을 맞이하여 새봄의 계절과 잘 어울리는 양념장 요리인 '달래장 만들기'를 하였다. 영유아들은 미리 준비해 놓은 달래의 생김새를 세심히 관찰하며 작은 파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작은 손으로 달래 껍질을 분리하고 생김새와 색깔, 냄새를 살피며 관찰하는 과정을 거쳤다. 잘 손질된 달래는 물에 정성껏 씻은 후 잘게 썰고 간장과 고춧가루 등을 섞어 완성했다.

따끈한 콩나물밥에 달래장을 비벼 먹으며 새봄이 주는 미각의 즐거움도 누렸다. 춘분 절기에 적합한 풍습과 전통을 경험하며 봄의 신선한 미각을 느낀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초롱반 오지혜 교사]

반세호 목사가 유아세례를 주고 있다.



호성대학교

입교와 유아세례식

24일, 입교 및 유아세례식을 진행하였다. 2명의 중학생이 입교인으로, 2명의 유아가 유아세례를 받고 교인으로 선포되었다. 반세호 담임 목사는 입교인과 유아의 부모님, 유아에게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은혜와 축복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성도를 향해서는 이 아이들을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함께 보살피며 섬기고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키워주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성도들도 힘찬 목소리로 모두 아멘으로 화답했다.

반 목사는 성서대학교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천국과 같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 섬기며 은혜 위에 날로 은혜를 더해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터전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강성훈 목사]

놀이를 즐기고 있는 일일 아빠와 아이들 |



상계백병원어린이집

일일 아빠 선생님

봄을 맞아 유아와 교사가 함께 텃밭 가꾸기 작업에 나섰다. 당일 작업은 일일 아빠 선생님을 초청해 진행하였다. 커다란 삽으로 흙을 퍼주면 교사와 아이들은 장갑 낀 손으로 흙을 섞으며 날랐다. 아빠 선생님과 함께 작물이 잘 자랄 수 있게 밑거름과 위에 텃밭 흙을 골고루 퍼주고 섞으며 부지런하게 움직인 결과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작업을 마친 후 바깥 놀이 일과에도 참여해 잡기 놀이와 고정식 대근육 기구에서 스스로 신체 조절에 즐겁게 임했다. 일일 아빠로 작업을 다 마친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텃밭 가꾸는 일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 모두 열성적으로 작업해 줬고 오늘 함께 한 텃밭 가꾸기가 자신에게 좋은 추억이 되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맑은반 윤서희교사]

학부모가 의뢰한 장난감을 수리하고 있다 |



노원복이중학지원센터

장난감 병원 운영

우리센터의 장난감도서관 놀이아띠는 지난 3월 18일~21일 장난감 병원을 운영했다.

2024년 첫 번째 장난감병원은 놀이아띠 4개 지점에서 51가정의 장난감을 수리해 주었다. 고장은 전원 불량률이 많았다. 전원 접속 부분이 오작동 일으켜 방치되기도 한다.

부품 훼손과 외부 파손을 의뢰해 오는 경우는 작업 여건에 따라 응해주었다. 아이들의 놀이 친구였던 장난감이 쓰레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서비스해주는 장난감병원은 8월과 11월에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장난감 병원은 양육비 절감은 물론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호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상희 보육전문요원]

학부모와 함께 보나 티타임이 진행되고 있다. |



상계동어린이집

2024 학년도 보나 티타임

25일부터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보나 티타임)이 진행되었다. 모든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소개하고 1년간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지 등을 담임교사와 함께 나누는 시간이다.

누리과정, 표준보육과정을 안내하며 국가에서 어떤 유아교육 철학을 갖고 아이를 교육하는지와 교사의 철학에 따른 중점프로그램도 소개하였다. 각 반별로 다양한 중점프로그램도 안내하며 의견을 주고받았고 각 연령 발달에 따른 다양한 놀이에 대해서도 안내가 이어졌다. 프로그램 소개 이후에는 자신의 아이를 소개하고, 양육에 대한 고민, 기관에 대한 궁금증, 건의 사항과 소통하는 시간을 진행하였다.

[초록풀잎반 강혜진 교사]

조리실 위생 환경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중이다. |



늘사랑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순회 지원

유아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위해 매년 2달에 한 번 씩 노원구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을 방문해 다양한 위생 교육과 함께 컨설팅을 받고 있다.

3월에는 원장과 조리사의 위생안전교육과 식중독 발생 사고 유형과 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또한 주방 도구의 청결 상태까지 확인하고 조리실 전체의 환경도 꼼꼼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평소 유아들에게 균형 잡힌 음식을 조리하며 잘 성장하도록 열심을 보여준 조리사의 노고가 더해져 좋은 평가를 받았다.

[늘사랑반 윤영숙 교사]

www.bible.ac.kr

「성서대학동기운동」 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동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 2024년 2월 21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 PayPal :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 384 048 3592 _ Routing No. : 121 000 248
- **접수처**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1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장순복	5,000만원(운영)	사회복지대학원 동문회	355만원(장학)
성서대학교회(반세호 목사)	1,536만원(운영)	메플전산초학술교육재단	200만원(장학)
강우정, 강진(이사장)	1,350만원(운영)	위대환	150만원(운영)
아산사회복지재단	600만원(장학)	이레장학	100만원(장학)
선교기부금	433만원(선교)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재학생 및 가족	3구좌 고윤정여진희 4구좌 김덕원	3구좌 권순호 5구좌 이경식 10구좌 김용철
1구좌 강신웅 권순길 김병렬 김순녀 김지선 노하나 도만 반혜빈 백해송 신연정 전영수 채종원 최진희	1구좌 이미숙 2구좌 강현중 권영진 권유주 김은미 김은희 김지영 김지혜 김현정 박혜신 백소옥 신동숙 이경민 이동수 이승진 최영숙 최장호	부설기관 박연희 5구좌 권정아	일 반 1구좌 노은경 2구좌 권소영 길미금 김동석 박재균 안은숙
2구좌 고성호	3구좌 박미영 전희문	서문교회	단체 및 기관
3구좌 권서영 서성숙 이길순 최양서	5구좌 손미연 정주화	1.5구좌 정찬수	2구좌 열방교회
5구좌 강경옥 권민지 벨셀성서동우회	교직원 및 가족	성서선교회	10구좌 상록교회
10구좌 김동관	1구좌 김세진	3구좌 태광성서교회	
12구좌 성낙표		중양성서교회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5천원 김미숙 김셋별 김시내	양혜영 엄미자 엄보영 연현숙 오세천 오채엽 용아름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소담 유수정 유영진 유주연 유주홍 윤영원 윤정숙 윤지준 윤현중 이광삼 이권호 이근중 이도훈 이두현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복희 이상용 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수경 이수진 이화연 이영광 이영식 이용원 이용철 이윤아 이윤주 이은광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진경 이재녀 이철승 이학준 이혜렬 이혜성 이현무 이현식 이현지 이화연 이환기 인자혜 임남연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 임찬용 장윤국 장익훈 장익식 장희남 전영호 전명자 전미영 전보람 전상호 전아름 전아영 전하나 정다연 정선도 정소윤 정영교 정은희 정인철 정재원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정희영 조민음 조소연 조수빈 조승희 조영희 조영희 조유민 조은경 조차현 주민자 주성현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채유신 채종원 최규봉 최서희 최성경 최성자 최승주 최승진 최윤석 최인호 최종운 최진희 최현정 최혜림 탁국현 탁윤석 하수현 하 진 하진우 한경순 한상장 한혜우 허영숙 홍금주 홍선호 홍성대 홍정식 황승호 황예린 황형록/강해트리 /설에스더/열매맺는교회 /활보혜영	3구좌 김동원 김미나 김미향 김민지 김복녀 김성훈 김연정 김영래 김형태 김용길 김원미 김유경 김은하 김재원 김정복 김지원 김현진 류종열 박상수 박재송 박주영 박혜숙 성용제 소경숙 송만규 송인성 신정섭 신화영 심규리 안선례 유미영 유익숙 윤광길 윤서희 이기주 이마리 이상복 이선영 이영림 이영애 이우진 आय미 आय진 이약선 이재은 이정목 이종임 이진리 이흥희 이한별 이현우 임수경 임수정 임은희 임주영 장은경 장재원 전영희 정복자 정성민 정영용 정옥순 정 완 최소정 조은별 최선옥 최수지 최인경 최호정 추하은 탁명화 하지혜 한 솔 허춘선 홍진옥 홍혜주 황인숙/등대교회	3구좌 권순호 5구좌 이경식 10구좌 김용철
1만원 강나경 강상미 강순성 강신웅 강애솔 강옥경 강은혜 강정민 강정희 강주옥 강춘자 고대운 고성호 고재민 광미화 구본길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권순길 권순실 권순옥 권솔기 권유헌 권정인 권지연 권희조 금동욱 금필규 김가영 김도훈 김두환 김명화 김명희 김무엘 김민정 김민을 김병렬 김선근 김세현 김수연 김수정 김순녀 김순덕 김순화 김승훈 김승희 김예진 김요셉 김유미 김유현 김은경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은혜 김응환 김일준 김재한 김재현 김정희 김지선 김진숙 김진영 김준덕 김태용 김하은 김하나 김혜영 김화석 나선영 남범수 남성휘 노명민 노하나 도 만 류요한 류하나 류희정 마효정 문기철 문성령 문정혜 문홍철 박경수 박경옥 박문홍 박수진 박순임 박아론 박윤복 박재신 박중주 박지영 박창대 박창민 박향식 박향택 박혜인 반해빈 반혜성 방지연 배은휘 배창경 배호순 백명희 백연옥 백연주 백해송 백향묵 변지윤 서성식 서유미 서지혜 서 현 서희영 손명배 손영화 손은숙 손진규 송순덕 송향숙 송현미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연정 신은혜 신지은 신혜영 심두한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김규리 김동원 김미나 김미향 김민지 김복녀 김성훈 김연정 김영래 김형태 김용길 김원미 김유경 김은하 김재원 김정복 김지원 김현진 류종열 박상수 박재송 박주영 박혜숙 성용제 소경숙 송만규 송인성 신정섭 신화영 심규리 안선례 유미영 유익숙 윤광길 윤서희 이기주 이마리 이상복 이선영 이영림 이영애 이우진 आय미 आय진 이약선 이재은 이정목 이종임 이진리 이흥희 이한별 이현우 임수경 임수정 임은희 임주영 장은경 장재원 전영희 정복자 정성민 정영용 정옥순 정 완 최소정 조은별 최선옥 최수지 최인경 최호정 추하은 탁명화 하지혜 한 솔 허춘선 홍진옥 홍혜주 황인숙/등대교회	6만원 정동주 10만원 김선옥 김장교 김중숙 김진만 박광필 서광진 서수경 신치선 이병모 11만원 신영옥 유선미 12만원 성낙표 100만원 이레장학	
	2만원 고난홍 구연민 국소영 길득희	3만원 고은영 공복순 구애은 권서영 권도규 권은지 김윤정 김은선 김재임 민승철 민찬양 박기혁 박문용 반세호 서성숙 설보경 성인선 손승현 양연선 우종엽 윤문순 이길순 이남희 이다윤 이상은 이안나 이윤성 이주연 이현지 임연식 장영훈 전지혜 정슬기 조서윤 최선경 최소린 최양서 탁현정 태지선 황영숙 /월계지역아동센터/좋은교회	6만원 정동주 10만원 김선옥 김장교 김중숙 김진만 박광필 서광진 서수경 신치선 이병모 11만원 신영옥 유선미 12만원 성낙표 100만원 이레장학
		3구좌 권순호 5구좌 이경식 10구좌 김용철	재학생 및 가족
			1만원 권명희 김민서 김선경 김양순 김은주 나예린 선유정 양은성 양주향 이동기 이성란 이연신 이혜정 임동화 장연정 전개화 지중배 2만원 강현중 광은혜 김미옥 김선미 김선옥 김애선 김지혜 김형태 박명규 송동식 송세희 연성희 오영이 이경민 이미영 이선경 이승진 이승찬 이은영 이혜봉 장영순 장은정 전옥순 정인숙 조복임 조윌이 지은영 최경애 최장현 함은애 3만원 박보병 배정숙 송익택 최정규 5만원 김명자 안중현 이재현 한승천 6만5천원 김은혜 7만원 황미숙 10만원 김세태 박은정 30만원 박지홍 50만원 송명애
			교직원 및 가족

기부자 명단

3천원 김 희 박인혁	장윤정	5만원 동두천성서성김교회	김윤숙 박재균 서병준 서성원
5천원 권경만 유다운 이소연 하희수	4만원 박미선	/월계성서교회	이일신 정주아 조혜령 최국열
1만원 강신애 광한나 권관희 김미영	5만원 김선화 박연희 신영자 이인경	10만원 다빛교회/삼일성서교회	최지연 허정안 홍춘호
김상일 김선준 김세미 김세진	이지연	수원교회	/평화의교회/행복한교회
김애란 김유진 김종현 김지환	10만원 권정아 장수진 조지선 차도영	1만원 강동형 김일섭 홍성호	3만원 장문석
김지효 김춘하 김형중 류은미	15만원 김화영 지주나	어린이교회	3만5천원 박은영
박남일 박덕자 박명우 박묘서	20만원 김신덕 차 건	1만원 김정희	5만원 석지현 이천화 주은자
박연지 박주양 서광철 양승원	35만원 오동준	3만원 임윤창/어린이교회	10만원 국미경 무 명 박지윤 서미혜
유성준 윤영섭 이문자 이은영	권선제일교회	7만원 이정선	송혜란 황수영
이정은 장경순 전광선 전귀선	1만원 이상규	이레교회	20만원 류동원 박경혜
정현아 지수빈 최미영 허윤민	5만원 권선제일교회	1만원 손미희	30만원 박순정
/요시다교조/하늘사랑	동광교회	장자교회	150만원 위대환
1만5천원 반우형 임수아	1만원 김복례 한미희 배 윤.김현진	4만원 권정숙	5000만원 장순복
2만원 강민경 강승현 고진주 구자람	밀알교회	5만원 장자교회	
권민주 권서후 김남철 김세원	1만원 서효정	주향교회	단체 및 기관
김장호 박은주 박태웅 안 호	삼일성서교회	1만원 유병우	1만원 김포예수사랑교회
오철송 유성현 장길정 장지순	1만원 김초롱 오성균 정혜란 한금순	2만원 정우진	/늘푸른교회
정순애 정은상 조철남 최난영	서문교회	3만원 주향교회	/맘키즈푸드/목양교회
한상만 한정숙	1만원 강신애 박경자 윤인호	중앙성서교회	/무진인테너셔널
2만5천원 김봉재 문지예 민경은 배민정	1만5천원 정찬수	1만원 김세현 김정희 이승학 이태학	/주님성교회
전영호	20만원 서문교회	최영란	/행복한교회
3만원 권오섭 김창현 방진희 유수연	성서대학교교회	2만원 신영옥 이수병 강영애.신한성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
추연진	3천원 박옥숙	이준구.안춘자	(주)에이스외식산업
3만5천원 신재운 양희정 여진희 윤혜진	9천원 광규상 오경모 이 천 정갑순	3만원 권순호 김덕규 오근수	/도새기짱
정지용	1만원 강경혜 오경원 이가는 이대영	5만원 김옥자 김중구 이경식 한금례	/바르고복된교회/열방교회
4만5천원 김덕원	1만원 이대환 이정철 이지수 이진호	/중앙성서교회원로 · 은퇴장로회	3만원 꿈꾸는교회/우리교회
5만원 구광면 김미숙 김성호 김원빈	1만8천원 강유진 고경숙 고미숙 권정화	10만원 김용철 송인숙 한상욱 현희철	/주식회사 이수전기
양단아 장정순	김다혜 김덕현 김동석 김문정A	/중앙성서교회 바울성교회	4만원 플랜팅시즈
5만5천원 김병수 김현동 신지수 유미나	김매열 김성은A 김성진B 김성철	12만원 황인돈.김순자	5만원 다드림교회
이상실	김애숙 김유미 김일선B 김주혜	15만원 이혜선	/미사목민교회
6만5천원 권순범	김지윤 김진철 김향순 김현미	20만원 김윤규	/본도시락 중계점
7만5천원 임환석	김희자 김희현 박상희A 박영숙	48만원 중앙성서교회 구제위원회	/사랑샘교회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광규상 김도경	박영신 박은선 박인숙 박주형	퇴계원제일교회	/상일교회/예일애드컬
김성경 김소희 김승호 김정숙	박태수 방미경 서영우 석경순	1만원 유재란	/행진교회
김주아 김태구 김현광 김현욱	송형기 안봉숙 오종철 용정자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10만원 (주)바다나라
김형미 문우열 박성환 배진형	이경미 이관영 이대우 이무현	평원교회	(주)이레E&C/리디자인
안창선 안현미 오은주 원영희	이봉호 이소정 이영진 이영희	1만원 성경아	/구리성광교회
유정선 이민규 이성이 이소정	이정숙 이정자 이종욱 이주현	평화교회	/구리중앙교회/도봉성산교회
이슬기 장인순 조현진 조혜경	장근문 장진희 장혜린 장홍림	1만원 안종민 안지선	/두암산업(주)/만나교회
최영태 최희은 현우석 홍소윤	정나영 정예진 조병하 조영희	풍암교회	/상록교회/서부중앙교회
김정원(신) 김정원(영)	조정선 최영태 최용석 하은희	1만원 윤은정	/성북중앙교회/소망교회
10만5천원 김덕현 신금주 장성희 최사랑	한성실 허진순 황성모 황시은	함평대동교회	/철원제일교회/청평교회
최유열	2만7천원 김영현 주양숙	1만원 김희경	/평안교회(신봉수)
11만5천원 최지은	3만6천원 강규성 감미경 김민자 김순옥	효성교회	20만원 (주)소원기건
13만5천원 김중완 한진호	김인자 김준환 노봉환 박 선	1만원 진경숙 진은숙 진효숙	30만원 한민제일교회
15만원 강규성 김은호 김희수 안정선	박선하 반해빈 반해성 유종영	일 반	200만원 메물전산초학술교육재단
이한영	윤재필 이경신 정도우 황서린	1만원 구필례 권숙영 권창석 김기수	350만원 사회복지대학원 동문회
20만원 김승욱 김창원 박 선 박태수	4만5천원 권경만 박은오 유휘창	김명호 김미라 김법설 김양권	442만원 선교기부금
정해덕 조윤경	5만4천원 김유미A 김현석 반세호 송재철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김천수	600만원 아산사회복지재단
20만5천원 정취진	이숙영 최선희	노은경 문혜영 박미숙 박영미	
25만원 임지영	6만3천원 김원태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송수용	
27만5천원 이강동	9만원 강성훈 김용희 김성진 박세건	안애숙 오미라 오미선 오지혜	
35만원 최선희	이수진 이은실 이정임 최강희	오현숙 유금례 유해연 유화실	
1,350만원 강우정.강 진	최순남 한진호	윤수현 윤준영 이관현 이사랑	
부설기관	18만원 무 명 전명진 최대만	이성영 이성태 이우윤 이원주	소계(20240221~20240320)
1만원 김옥준 김은지 김지은 김효진	27만원 허에스더	이유진 이현수 임숙자 조동빈	123,022,370
임재택 최영운 호한나	1,537만원성서대학교교회	조목장 조연상 조여원 조은혜	누계(20240301~20240320)
2만원 진양희	성서선교회	진윤승 최경숙 최범식 최서영	46,409,870
3만원 권효진 문유나 박천순 변송이	2만원 금촌성서교회	최은실 한준경 황영수/위셀러듀	
안미희 위소진 유정현 장나혜	3만원 태광성서교회/푸른동산교회	2만원 강명옥 길옥석 김동석 김성래	

한국성서대학교 3월 『발전후원금』

일반(일시납) 후원자 (3,720,000원)

사회복지동문회 3,500,000 / 임수정(동문) 100,000 / 인성은(동문) 50,000 / 김은숙 (동문) 50,000

약정 후원자 (합계 12구좌, 연간 납입 예정액 1,440,000원)

5구좌 새빛교회(동문), 유아랑(동문) / 2구좌 임수정 (동문)

일시납 누계(3.1~3.20) 3,720,000원 약정자 누계 (3.1~3.20) 12구좌 연간납입예정액 1,440,000원